

동의보감 『진액』문 “泣(눈물)”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黃帝>曰 人之哀而泣涕者 何氣使然?

황제가 “무슨 기운이 슬플 때 눈물과 콧물이 나오게 하는가”고 물었다.

<岐伯>曰 心者 五臟六腑之主也 目者 宗脈之所聚也 上液之道也 口鼻者 氣之門戶也

그러자 기백이 “심(心)은 5장 6부를 주관하며 눈은 종맥(宗脈)(눈)이 모인 곳이고 액이 올라가는 길이다. 입과 코는 기가 나드는 곳이다.

故悲哀愁憂則心動 心動則五臟六腑皆搖 搖則宗脈感 宗脈感則液道開 液道開故泣涕出焉.

슬퍼하거나 근심하면 심이 동하는데 심이 동하면 5장 6부가 다 동한다.

또한 심이 동하면 종맥이 감동되고 종맥이 감동되면 액이 통하는 길이 열리는데

액이 통하는 길이 열리면 눈물과 콧물이 나온다”고 하였다.

[註] 종맥(宗脈) : 여러 개의 경맥이 모인 곳 즉 주되는 경맥인데 폐경의 큰 경맥을 말한다.

동의보감 『허로』문 “허로치법”의 내용입니다.

- | | |
|-----------------|-------------------------------|
| ○ 治損之法 | 허손병을 치료하는 법에서 |
| 損其肺者 益其氣, | 폐가 허약한 데는 폐기(肺氣)를 보할 것이고 |
| 損其心者 調其榮血, | 심이 허약한 데는 영혈(榮血)을 보할 것이며 |
| 損其脾者 調其飲食 適其寒溫, | 비가 허약한 데는 음식을 조절하여 먹되 차고 더운 것 |
| | 알맞게 한다. |
| 損其肝者 緩其中, | 간이 허약한 데는 속을 완화시킬 것이며 |
| 損其腎者 益其精(難經). | 신이 허약한 데는 정(精)을 보해주어야 한다[난경]. |

태을진인 칠금문(太乙真人 七禁文)이란, 수양하는 사람에게 있어 7가지 금해야 할 사항을 논한 것입니다.

- ① 少言語 養內氣 말을 적게 하여 내기를 기른다.
- ② 戒色慾 養精氣 색욕을 경계하여 혈기를 기른다.
- ③ 薄滋味 養血氣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어 혈기를 기른다.
- ④ 嚥精液 養臟氣 침을 삼켜서 장기를 기른다.
- ⑤ 莫嗔怒 養肝氣 화내지 않아서 간기를 기른다.
- ⑥ 美飲食 養胃氣 좋은 음식을 먹어서 위기를 기른다.
- ⑦ 少思慮 養心氣 적게 생각하여 심기를 기른다.

비약증이란, 체내의 진액, 즉 수분이 너무 많이 손실되어 대변이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약증에 대한 동의보감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약증(脾約證)

상한양명병(傷寒陽明病)에 땀이 저절로 나고(自汗出) 오줌이 자주 나오면(小便數) 진액(津液)이 속에서 마르므로[內竭] 대변이 굳어져서 힘들게 나온다.(大便難) 이것은 비(脾)가 졸아들기[約] 때문이다.

두풍증(頭風證)

두풍증은 원래 담음(痰飲)이 있거나 목욕하다가 한사를 받거나 바람받이에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머리와 목덜미에 풍사가 침범하게 되면 생기는데 이때에는 목에서부터 귀, 눈, 입, 코, 이마까지가 마비되어 감각이 없고 또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며 머리의 피부가 뻣뻣해서 감각을 모르고 입과 혀가 잘 놀려지지 않으며 음식맛을 모르며 귀가 먹고 눈이 아프며 혹은 눈썹 난 곳이 아래위가 잡아당기는 것같이 아프고 냄새에 예민하며 하품할 때 아찔해지는 증상이 있다.

결역두통(厥逆頭痛)

몹시 찬 기운이 골수(骨髓)에 침범하면 골수는 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뇌로 치밀어 오르게 된다. 그러면 머리와 이빨이 아픈데 이것을 결역두통(厥逆頭痛)이라고 한다.

진두통(眞頭痛)

진두통(眞頭痛)이란 머리가 몹시 아픈 것인데 골 속이 다 아프면서 손발의 뼈마디까지 찬 것은 치료할 수 없다

진두통이란 그 아픔이 풍부혈(風府穴)을 뚫고 올라가서 니환궁(泥丸宮)까지 들어간 것인데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아침에 생겼으면 저녁에 죽고 저녁에 생겼으면 아침에 죽는다. 왜냐하면 머리 속은 사람의 근본이 먼저 상하였기 때문이다

移情變氣療法 이란, 병이 생긴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이 풀어지길 빌어서 해결하는 고대의 치료방법입니다.

가. “황제가 물어서 말하길 나는 옛날에 병을 치료할 때는 오직 移情變氣의 방법을 사용했다 들었다...”

황제내경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이처럼 이 방법은 고대에 사용되었고, 황제내경에 제시되었습니다.

나. 제사를 지내는 신전에서 병의 원인을 푸는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 환자의 기분을 전환시켜서 병을 치료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 祝由: 원시신앙에서 비록된 것으로 ‘병의 由來를 알아 이를 빌어서 풀어헤친다.